

17 옷차림으로 말해요

Chapter

롬 13:11~14, 벵전 3:3~4
은혜찬송 75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 122장 (찬송의 옷)

오늘 배울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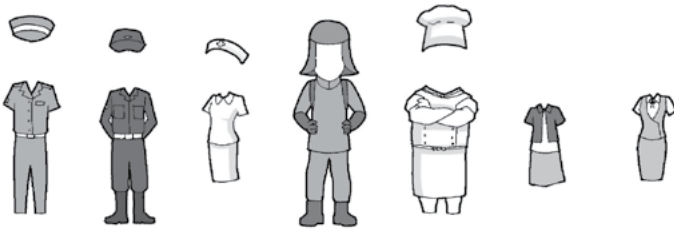
1. 단정한 옷차림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2.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 열기

1. 아래 그림에 나온 각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 신분을 추측해 봅시다.



2. 위 사람들이 입는 옷을 순서대로 정렬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신분을 다시 추측해 봅시다.



3. 옷이 하는 역할을 세 가지만 적어 봅시다.

- 1)
- 2)
- 3)



말씀을 이해하기

공과말씀정리

인간이 입은 최초의 옷은 아담의 가죽옷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희생시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훗날 오실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찬송의 옷, 의의 옷,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옷차림도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언어나 행동 외모(머리 모양, 옷차림, 화장, 표정 등)를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즉 외모는 말이나 행동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단정하고 깨끗한 외모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외모가 우리 자신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걸사람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꾸미는 것 이상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가서에는 솔로몬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솔라미 여인이 나오는데 그녀는 피부가 검고 거친 여자였지만 솔로몬 왕은 그녀가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온몸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3:14)

But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make no provision for the flesh, to fulfill its lusts (Ro 13:14)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고전 11:14~15, 벰전 3:3~4)

(사 3:16~26)

(엡 6:13~17)

2. 디모데전서 2장 9~10절을 읽고 다음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 적어봅시다.

염치	
decency	
정절	
propriety	
아담한	
modestly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며, 거룩이란 말의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112페이지의 그림을 보고 세상의 옷차림은 어떤 것이며 구별된 나의 옷차림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나의 옷차림을 통해 내가 구별된 사람임을 아나요?

2. 이사야 61장 10절과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읽어보세요. 사람이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과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3. 마태복음 23장 25~28절을 읽으세요. 주님은 외모를 가꾸기보다 내면을 먼저 가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중에 내가 거울을 보는 시간과 횟수, 말씀을 보는 시간과 횟수를 적어봅시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시간과 횟수를, 거울을 보는 시간과 횟수보다 늘려 봅시다.

① 거울을 보는 횟수: 회, 거울을 보는 시간: 시간

② 말씀을 보는 횟수: 회, 말씀을 보는 시간: 시간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하게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날 구원하신 그날



저는 구원받기 전에 내 죄가 너무 커서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 죄가 이미 예수님의 피로 없어졌다는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려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사 43:25)

걸레와 그리스도인

‘걸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걸레’와 ‘그리스도인’은 얼핏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더러운 걸레와 비교하고 그렇게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에 봉사하는 성도가 되자는 헌신의 권고입니다.

더러운 곳은 걸레가 지나가면 깨끗해집니다. 방바닥을 지나면 방바닥이 깨끗해지고, 책상 위를 지나면 책상 위가 깨끗해지고, 마루를 지나가면 마루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걸레를 쓰고 나면 마루 한구석에 던져 버리고 맙니다. 걸레는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지만 한 번도 안방 아랫목을 차지해본 일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아랫목을 차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걸레는 자기의 손질이 닿는 곳이 깨끗해진 것으로,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자기가 사용된 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 갈 때에도 이런 걸레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더러운 곳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손길과 관심과 사랑이 그곳에 닿아 더러운 곳이 깨끗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며 사랑이 싹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내가 사용된 것만으로 만족해하고 그 일에 부족한 나를 사용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